

## 유 · 아동복 레이블의 불만에 관한 연구

박선경 · 홍지명\* · 이정순\*\* · 신혜원\*\*\* · 유효선\*

인하대 의류학과, \*서울대 의류학과, \*\*충남대 의류학과, \*\*\*동국대 가정교육과

### A Study on Consumer Complaints over Labels on Children's Clothing

Son Kyung Park · Ji Myung Hong\* · Jung Soon Lee\*\* · Hye Won Shin\*\*\* · Hyo Seon Ryu\*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cience, Inha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cience, Choo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1998. 11. 20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material, the type(sewn-in, stamped-on, etc.) of the label and its placement(location on the product) on children's clothing in order to survey consumer complaints to suggest the improve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label-producing companies, by surveying children's clothing displayed at department store as well as by questionnaire to 205 consumers who were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100% polyester was the most used raw material for brand labels and nylon was for care labels.
2. Most brand labels were one piece labels and located inside the back of neck line by sewn-in either on the top, on each sides, or on all four sides. Care labels were usually sewn-in on the inside of left-side seam line. The texture of care label was softer than that of brand label and two pieces of care labels were widely used.
3. 67.3% of consumers complained of its stiffness while 36.1% of consumers complained of rough surface and edge, 85.4% of consumers complained of an itch caused by brand labels and claimed to detach labels. For care labels, 36.6% expressed displeasure of stiffness of labels while 39% complained of annoyance due to too many pieces of labels.
4. Major suggestions from the consumers were change of raw materials and relocation of brand labels. For the care labels, changes of material, form and type of labels were suggested, and one piece of label and smaller size were preferable.

**Key words:** label, consumer complaint, children's clothing; 레이블, 소비자 불만, 유 · 아동복

## I. 서론

기성복에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블이 부착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류 제품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된 레이블은 소비자가 의류제품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취급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레이블에는 크게 품질 표시 레이블과 상표 표시 레이블이 있는데, 품질 표시 레이블은 우리 나라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 표시 레이블의 부착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고 단지 제조자가 자사 상품의 홍보를 위해서나 또는 소비자에게 인지도된 브랜드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구매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부착하고 있다.

제조자는 레이블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레이블을 떼어내지 않도록 해야만 원래 레이블 부착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sup>1)</sup>. 레이블이 잘못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키는데, 잘못된 레이블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피부장해이다. 의류에 의한 피부장해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과 물리적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irritant contact dermatitis)으로<sup>2)</sup>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의류에 의한 피부장해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보다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많다<sup>3)</sup>. 물리적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뽀뽀한 섬유나 직물, 레이블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표 표시 또는 품질 표시를 위하여 의류에 부착되는 레이블은 주로 의복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피부와 접촉되므로 착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어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은 2세 이하의 유아기 및 10세 이하의 소아기에 심하게 나타남으로 이 시기의 어린이에게 있어서 물리적 자극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sup>4)</sup>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의

레이블에 관한 연구들<sup>5-11)</sup>은 모두 레이블의 표시 내용에 관한 연구들이며, 레이블에 의한 피부자극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동복에 부착된 상표 표시 레이블과 품질 표시 레이블에 대한 부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유·아동복의 레이블 부착 실태 조사

#### 1) 레이블 부착 상태

조사대상은 6개월 이하의 新生兒期, 6개월에서 만2세까지에 해당하는 乳兒期, 그리고 만2세에서 만6세까지의 幼兒期<sup>12)</sup>를 포함하는 취학 전 아동복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新生兒의 의복을 신생아복으로, 乳兒의 의복을 유아복으로, 幼兒의 의복을 아동복으로 정의하였다. 유·아동복에 부착된 레이블의 부착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서울시내 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백화점 매장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유·아동복에 부착된 품질 표시 및 상표 표시 레이블의 부착위치, 형태, 부착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브랜드는 신생아 및 유아복 9개 브랜드와 아동복 25개 브랜드를 포함하여 총 32개 브랜드였다. 조사된 의복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으로 제한하여, 신생아복은 배내옷, 우주복과 내의의 7개, 유아복은 내의, 원피스와 티셔츠의 32개, 아동복은 남방, 내의, 원피스, 티셔츠와 니트의 35개가 포함되어 총 74개의 의복이 조사되었다.

#### 2) 레이블 소재

1998년 8월에 유·아동복 제조 회사에 레이블을 납품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품질 표시 및 상표 표시 레이블의 소재를 조사하였다.

### 2. 소비자 불만 조사

유·아동복에 부착된 레이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8년 8월에 취학 전 아이들 둔 주부 중 서울과 대전에 거주하는 주부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을 위

해 SPSS WI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유·아동복의 레이블 부착 실태

##### 1) 레이블 부착 상태

상표 표시 레이블의 부착 위치와 겹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상표 표시 레이블의 부착위치는 옷의 안쪽 뒷목부분과 뒤트임부분, 옷의 바깥쪽 앞가슴부분과 목부분 등이었으며, 이 중 옷의 안쪽 뒷목 부분에 부착된 경우가 가장 많아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착용자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옷의 바깥쪽에 레이블을 부착한 경우는 신생아 우주복이나, 아동복 티셔츠에서 옷의 바깥쪽 뒷목부분에 부착된 사례가 각각 1건씩 있었고, 바깥쪽 가슴부분에 부착된 사례는 유아복의 내의가 6건, 티셔츠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있었는데, 이는 옷의 안쪽에 부착된 경우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기타의 경우로는 뒷지퍼에 세로로 부착하거나 허리선밖에 부착한 경우들이 있었다. 상표 표시 레이블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10건이나 있었는데, 이는 상표를 의복 바깥에 직접 자수나 프린트로 나타낸 경우였다.

상표 표시 레이블은 조사대상 품목의 경우 모두 1매로 되어 있었으며, 겹수는 1겹 또는 2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1겹으로 된 것이 훨씬 많았다.

상표 표시 레이블의 부착 방법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상표 표시 레이블은 사방을 박음질하거나, 또는 시접과 함께 위를 박음질하거나 양쪽 끝을 박음질하여 옷에 부착하였으며, 신생아복의 배내옷이나 내의에서는 떼어낼 수 있도록 스티커로 부착한 경우가 각각 1건씩 있었다.

품질 표시 레이블의 부착 위치와 매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품질 표시 레이블 부착위치는 옷의 바깥쪽의 경우 목선과 앞깃 또는 허리선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들 위치에 부착된 품목은 신생아복이나 유아복의 경우로서 제조자측에서도 레이블이 주는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옷의 안쪽에 부착된 경우에는 옆솔기 허리부분과 안단, 그리고 목선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중 옆솔기 허리부분에 옆선과 함께 박음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의복 안쪽에 부착된 경우는 신생아복 보다는 유·아동복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제조자측에서 유·아동복의 경우는 문제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 바지 허리 위치 바깥 부분이나 원피스의 요크 안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품질 표시 레이블의 매수는 1매인 것이 17건, 2매로 되어있는 경우가 54건, 3매인 경우 3

<표 1> 상표 표시 레이블의 부착 위치 및 겹수

구분	부착 위치					없음	겹 수	
	겉		안				1겹	2겹
	목부분	가슴부분	목부분	뒤트임	기타			
신생아복	1		3			3	4	
유아복		8	11	4	3	6	21	5
아동복	1		32	1	1	1	26	8
합계	2	8	45	5	4	10	51	13

<표 2> 상표 표시 레이블의 부착 방법

구분	스티커로 부착	사방박음	시접과 함께 위를 박음	양쪽박음	기타	없음
신생아복	2	2				3
유아복		11	11	4		6
아동복		6	10	17	1	1
합계	2	19	21	21	1	10

〈표 3〉 품질 표시 레이블의 부착 위치와 매수

구 분	결			안			매 수			접 수		
	목선	앞깃/ 허리선	옆솔기 허리부분	안단	목선	기타	1매	2매	3매	1접	2접	1접 +2접
신생아복	2	2	3				1	6			7	
유아복	2	2	22	3	2	1	11	21			32	
아동복			32		2	1	5	27	3		32	3
합 계	4	4	57	3	4	2	17	54	3	0	71	3

건으로 2매로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이 2접으로 되어 있었다. 2접으로 된 것은 반을 접어서 한쪽 끝을 솔기와 함께 박음질하는 방법으로 의복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품질 표시 레이블은 상표 표시 레이블보다는 촉감이 부드러운 반면, 대부분이 2매, 2접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4접과 같아 이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품질 표시 레이블의 내용 표기 방법은 직물에 프린트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2) 레이블 소재

레이블 소재 조사 결과 상표 표시 레이블에는 100% 폴리에스테르 자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금속사를 사용한 자수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레이블이 두껍고 뻣뻣하며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그 외 레이온 자카드나 면직물 위에 프린트 한 것이 약간 사용되기도 하였다.

품질 표시 레이블에는 주로 나일론 직물 위에 프린트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부직포로 된 품질 표시 레이블도 있었으나 사용 도중 내용이 지워지는 경향이 많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였다.

레이블이 뻣뻣한 원인은 봉제과정에서의 편리를 위하여 레이블에 수지 처리를 하기 때문이며, 레이블 가장자리가 거친 것은 제직 후 열로 절단하기 때문으로 최근에 도입된 초음파 절단기를 사용하면 거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즉, 제품의 가격이나 봉제와 제직상의 편리만을 고려하여 레이블을 제작하기 때문에 레이블이 뻣뻣하고 거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유·아동복의 레이블에 대한 소비자 불만

### 1) 상표 표시 레이블에 관한 불만

유·아동복에 부착된 상표 표시 레이블에 관한 불만 조사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설문조사는 상표 표시 레이블 중 옷의 뒷목부분 안쪽에 붙은 것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옷의 바깥쪽 가슴 부분처럼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상표 표시 레이블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상표 표시 레이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138명이 레이블이 뻣뻣해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74명이 표면 및 가장자리가 거칠다고 하였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39명으로 19%에 불과하였다. 즉, 많은 소비자들이 상표 표시 레이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이블을 떼어내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13.7%가 항상 떼어낸다고 하였고, 71.7%는 문제가 되는 경우에 떼어낸다고 답하여 85.4%가 레이블을 떼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떼어내는 옷의 종류는 내의가 7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티셔츠, 남방, 원피스, 우주복의 순 이었다. 여기에 선정한 품목들은 피부에 직접 닿을 가능성이 있는 의류들인데, 그 중에서도 피부와의 접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의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티셔츠는 내의를 입지 않고 바로 입는 경우가 많아 내의 다음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외의 의류들은 경우에 따라 내의 위에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원피스는 여아만 착용하고, 우주복은 신생아에만 해당되는 의류이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하여 떼어낸다는 응답이 적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상표 표시 레이블에 의해 겪은 불편 사항에는 아기가 손으로 긁는다는 것과 따가움이나 가려움을

〈표 4〉 상표 표시 레이블에 관한 불만 조사 결과

상표 표시 레이블에 관한 인식*			떼어 내는 여부			떼어 내는 옷의 종류*			불편 사항*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별 문제가 없다	39	19.0	항상 떼어낸다	28	13.7	내의	133	75.2	아이가 손으로 긁는다	120	58.5
레이블이 뽀뽀 해서 불편하다	138	67.3	문제가 되는 경우에 떼어낸다	147	71.7	우주복	22	12.4	아이가 따가움이나 가려움 등을 호소한다	120	58.5
표면 및 가장자리가 거칠다	74	36.1	떼지 않는다	30	14.6	티셔츠	117	66.1	피부가 발적된다	67	32.7
기타	2	1.0				원피스	43	24.3	진물등 2차 감염이 일어난다	4	2.0
						남방	45	25.4	불편함이 없었다	32	15.6
									기타	2	1.0
계	253	123.4	계	205	100	계	360	203.4	계	345	168.3

\*복수응답이며 퍼센트는 응답자수에 대한 것임

〈표 5〉 품질 표시 레이블에 관한 불만 조사 결과

품질 표시 레이블에 관한 인식*			떼어 내는 여부			떼어 내는 옷의 종류*			불편 사항*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별 문제가 없다	75	36.6	항상 떼어낸다	12	5.9	내의(상의)	117	81.8	아이가 손으로 긁는다	84	41.0
레이블이 뽀뽀 해서 불편하다	75	36.6	문제가 되는 경우에 떼어낸다	122	59.5	내의(하의)	51	35.7	아이가 따가움이나 가려움 등을 호소한다	84	41.0
여러 장이 붙어 있어 지추장스럽다	80	39.0	떼지 않는다	71	34.6	우주복	15	10.5	피부가 발적된다	30	14.6
기타	1	0.5				티셔츠	71	49.7	불편함이 없었다	72	35.1
						원피스	30	21.0	기타	8	3.9
						남방	25	10.5			
						바지	16	11.2			
계	231	112.7	계	205	100	계	325	227.3	계	278	135.6

\*복수응답이며 퍼센트는 응답자수에 대한 것임

호소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진물 등 이차 감염이 일어난 경우도 4건이 있었다. 이에 비하여 불편함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6%에 불과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품질 표시 레이블에 관한 불만

유·아동복의 옆선 안쪽에 부착된 품질 표시 레이블에 관한 불만 조사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품질 표시 레이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는 36.6%가 레이블이 뺏겨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39%는 여러 장이 붙어있어 거추장스럽다고 하였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경우는 36.6%로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상표 표시 레이블의 경우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표시 레이블을 떼어내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5.9%가 항상 떼어낸다고 하였고, 59.5%는 문제가 되는 경우에 떼어낸다고 하여 65.5%가 레이블을 떼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내는 옷의 종류로는 내의 상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티셔츠, 내의 하의, 윈피스 등의 순이었다.

품질 표시 레이블에 의해 겪은 불편사항에서는 아이가 손으로 긁는다는 내용과 아이가 따가움이나 가려움 등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각각 41%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가 발적된 경우가 14.6%였으며, 불편함이 없었다는 응답은 35.1%로 많은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편함의 정도는 상표 표시 레이블보다 덜 하였다. 이는 상표 표시 레이블은 품질 표시 레이블 보다 촉감이 더 뻣뻣하고, 거의 직물에 수를 놓아 표시를 하여 표면이 더 거칠며, 금속사를 사용한 경우도 있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부착 위치에 있어서도 상표 표시 레이블은 거의 뒷목부분 안쪽에 부착되어 있어 피부에 밀착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품질 표시 레이블은 상표 표시 레이블보다는 촉감이 덜 뻣뻣하고 거의 직물에 프린트를 하여 표면은 매끄러운 편이었으며, 앞선 안쪽에 부착되어 뒷목부분 안쪽에 부착된 것 보다는 피부에 덜 밀착되므로 문제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상표 표시 레이블 및 품질 표시 레이블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아이들과 정상 피부인 아이들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두 집단간에 차이가 보이지 않아 레이블에 의한 불편은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아이들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느끼는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아동복에 레이블을 부착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레이블에 대한 개선안

유·아동복의 레이블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나타냈으므로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설문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레이블의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개선할 점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상표 표시 레이블의 경우 6.9%, 품질 표시 레이블의 경우는 16.8%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개선을 원하였다. 개선할 내용으로는 상표 표시 레이블의 경우는 레이블의 부착 위치와 소재를 개선할 것을 바라는 응답이 각각 38.2%와 36.6%로 많았고, 품질 표시 레이블의 경우는 레이블의 소재를 개선해 달라는 사람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레이블의 크기, 매수, 모양, 부착형태, 박음질 형태를 개선하기를 바라는 응답이 29.8%였다. 그 외 품질 표시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제작해 달라거나,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여 옷 바깥에 붙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표 6> 상표 표시 및 품질 표시 레이블의 개선사항

개선할 내용	빈도(%)	
	상표 표시 레이블	품질 표시 레이블
개선할 점이 없다	9(6.9)	22(16.8)
레이블의 소재	48(36.6)	43(32.8)
레이블의 형태(크기, 매수, 모양, 부착형태, 박음질 형태)	21(16.0)	39(29.8)
레이블의 부착위치	50(38.2)	17(13.0)
기타	3(2.3)	10(7.8)
계	131(100)	131(100)

이와 같은 개선 요구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한다. 상표 및 품질 표시 레이블에 있어서 레이블을 옷 바깥쪽에 붙이는 것이 제조자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며, 상표 표시 레이블의 경우에는 오히려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품질 표시 레이블의 경우에는 옷 바깥에 붙이기 위해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아동복의 소재 대부분이 면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블은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이 사용되었는데, 고가 브랜드 외국제품에는 면 소재 의복에 면

레이블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레이블은 한 아이템 당 소량 제작이 가능하나, 면 소재 레이블은 소량 제작이 불가능하다. 즉 대량으로 제작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기피해 왔으나, 의복의 소재와 동일한 면으로 바꾸어 차별화 시킴으로써 고가의복에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IV. 결 론

유·아동복에 부착된 상표 표시 및 품질 표시 레이블의 소재와 부착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레이블의 소재 조사 결과 상표 표시 레이블에는 100%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 레이온과 면이 약간 사용되기도 하였다. 품질 표시 레이블에는 주로 나일론이 사용되었다.

2. 레이블의 부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표 표시 레이블은 주로 옷의 뒷목부분 안쪽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한 장으로 되어 있었고, 목선 시접과 함께 위를 박음질하거나, 좌우의 양 끝 또는 사방을 박음질하여 옷에 부착한 형태였다. 품질 표시 레이블은 주로 옷의 왼쪽 옆술기 안쪽에 술기와 함께 박음질되어 있었으며, 촉감은 상표 표시 레이블 보다 부드러운 편이나,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3. 레이블의 불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상표 표시 및 품질 표시 레이블 모두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뻣뻣하고, 표면 및 가장자리가 거칠고, 여러 장이 붙어 있어 거추장스럽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레이블을 떼어내었고, 레이블에 의한 접촉 부위를 아이가 손으로 긁거나, 따가움이나 가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상표 표시 레이블에 대하여는 소재와 부착위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품질 표시 레이블의 경우는 소재와 형태(크기, 매수, 모양,

부착형태)를 바꾸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조자 측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아동복 레이블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블을 옷의 밖에 부착할 것과 옷과 동일한 소재의 레이블을 사용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 참 고 문 헌

1. Patty Brown, "Ready to wear apparel analysis", Macmillan Publishing Co., p. 45, 1992.
2. A. P. Kaplan, "Allergy", W. B. Saunders company, 2nd ed., p. 603, 1997
3. K. L. Hatch, "Textile Science", West Publishing Co., p. 72, 1993
4. 대한 피부과학회 간행위원회, "피부과학", 여문간, pp. 82-85, 1986
5. 전경란, 우리 나라 섬유제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연구, 청주고대 논문집, p. 441, 1981
6. 조난연, 여대생 의복 구매행동과 라벨에 관한 태도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
7. 선호순, 시판 의류제품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8. 배순화, 이미식, 섬유제품의 취급방법과 관련된 라벨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4), pp. 480-489, 1994.
9. 박찬애, 시판의류제품의 품질표시 실태와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10. 박광희,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pp. 159-166, 1995
11. 홍지명, 신혜원,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pp. 716-724, 1998
12.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pp. 324-327, 1983